

투데이 칼럼

합리적인 사유(思惟)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무엇보다 표현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요 인간다운 삶과 구별되는 점을 리타어로 표현한 용어가 몇 개 있다고 본다.

그 가운데 하나는 '호모 사피엔스'이고 다른 하나는 '호모 로쿠엔스'이다.

'호모 사피엔스'는 '지혜로운 인간' 혹은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인간'이란 뜻으로 스웨덴의 식물학자 칼 폰 린네의 저서에서 알려졌다.

'호모 로쿠엔스'는 말하는 자 또는 '언어적 인간'이라고 풀이할 수 있는데 20세기 영국의 음성학자인 테니스 버틀러프라이가 인간을 그릇과 정의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두 개념 사이에는 100년도 넘는 간격이 있는데 그 사이에 19세기 초 찰스 다윈은 매우 복잡한 소리를 생각과 결부시키는 인간의 능력을 다른 동물과의 차이로 지적하기도 했다.

위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언어가 정제돼 있어야 합리적인 사유(思惟)를 할 수 있고 합리적인 사유를 할 수 있어야 말과



김 양 옥
한국스피치·음변협회 전북회장

말이 바르게 표현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언어로 사유, 즉 생각을 한다.

단일 언어가 체계적으로 정돈돼 있지 않다면 어떤 논리적인 생각도 할 수 없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도 문장을 구성하는 주어, 서술어, 보어 등의 성분을 찾고 단어의 품사를 나누는 등 문법을 완성했다.

그 후 그들은 각각 자신들이 정당한 언어는 문헌학을 연구하고 인간 자체와 삶에 대해 사유하고 토론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을 남긴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도 정제된 언어가 있어 생각이 가능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들이 선조들의 사유와 토론의 깊이를 들여다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남긴 언어적 결과물, 즉 말과 글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인간다운 수 있고 오늘 날의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언어능력이 바탕이 된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었던 덕분이다.

현대 사회에서 높이 평가되는 인간의 지적능력은 암기력이나 기억력이 아니다.

창의력과 논리력이다.

창의력은 남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세상을 꿈꾸게 하는 희망이고 변형의 능력이다.

논리력은 합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해서 나와 같이 생각하고 주

장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다.

논리력은 학습으로 쉽게 키울 수 있고 논리력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국가를 이끄는 인재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랑 하나를 두고 왜 상대방이 아닌 내가 먹어야 하는지 다루는 어린아이에게도 필요하고 집으로 배달된 비싼 가전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읽고 기계를 잘 작동시키는데도 필요하다.

부부싸움에서 내 주장이 약하다고 느낄 때 "근데 왜 소리를 질러? 나도 말 안해!"하고 논점을 벗어나는 사람에게도 특히 필요하다.

정치적으로도 "보수냐? 진보냐?" 하면서 다루는 등 세상살이에서 필요하다.

그러므로 상대의 생각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하며 합리적 사고를 기를수도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터득하게 되는 것이다.

논리적인 스피치는 세상을 창조하며 발전시키고 인류 어느 민족에게도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똑똑하게 만들어 주며 현명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사설

돌봄 시스템 일원화와 서거석 후보

청소년들을 위한 돌봄 시스템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가운데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이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돌봄 시스템 운영을 주장했다.

서거석 전 총장은 "돌봄이 불안정하면 당장 부모의 입상이 흔들린다"면서 "돌봄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맞벌이 부모의 경우 맘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돌봄 정책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현재 돌봄 시스템은 교육부의 초·중·고 돌봄 교실과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으로 나뉘어 있다. 그리고 시·도 교육청마다 운영 방식과 지원이 다르다.

대상과 시간, 내용이 중복돼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다. 실제로 학부모와 아이들, 학교와 기관, 관계자들 간 혼란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갈수록 행복한 육아와 아동·

여성 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중요한 과제다.

양질의 보육 환경과 아동·부부의 특성에 따른 맞춤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일과 가정 양립 지원으로 취업 여성의 육아 부담을 줄여야 한다.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양성 평등 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한다.

맞춤형 복지도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일은 바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길이다. 세심하고 꼼꼼하게 그리고 틈새 없는 복지 선진국 구축이 절실하다.

특히 취약계층 생활 보장과 복지 사각지대에 충족한 돌봄 복지 지원이 절실하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정도 여전히 많다.

임신과 출산에서부터 육아와 돌봄까지 지자체와 지역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바란다.

실종된 올림픽 품격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대한 비난이 거셌다. 중국 네티즌들의 부적절한 행태도 문제다. 쇼트트랙 2000m 혼성계주의 준준결승 예선 편과 판정 논란이 제기됐다.

중국이 13바퀴를 남기고 선수 교대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런즈웨이와 장위팅 사이에 러시아 올림픽위원회(ROC) 선수가 끼었다.

런즈웨이는 ROC 선수의 터치를 장위팅의 터치로 착각하고 달려 나갔다. 장위팅이 터치를 하려고 쫓아가다 포기하는 모습 이 중계 화면에 고스란히 잡혔다. 터치 없이 교대한 정황이 명백했다.

그러나 심판진은 중국에 벌칙을 부여하지 않은 채 ROC와 미국이 교대 상황에서 중국의 진로를 방해했다며 실격 처분을 내렸다.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미국이 실격 처리되면서 3위였던 중국이 조 2위로 결승에 진출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앞서 지난달 4일 개회식에서는 한복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조선족 문화'로 소개했다. 한복을

입은 가족이 설 명절을 보내는 모습과 쥐불놀이, 강강술래 등 한국의 전통 놀이를 '진린(吉林)성 바이산(白山)'의 전통문화로 소개했다.

한복을 입고 탕기를 곱게 드린 여성이 6개 민족 대표의 일원으로 등장했다. '동북공정' 논란과 겹쳐 우리 국민이 불쾌함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쇼트트랙 맞수'인 한국을 견제하려는 중국 네티즌들의 몰상식한 행태도 논란을 빚었다. 곡윤기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올 뒷세'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자 중국 네티즌들은 그의 인스타그램에 달려들어 악플을 퍼부었다.

중국 네티즌들은 쇼트트랙 2000m 혼성계주 준준결승 1조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의 박장혁(스포츠포티)이 넘어져 탈락하자 한국 선수들의 '짤방'(간단하게 편집한 사진·영상상)을 만들어 조롱거리로 삼기도 했다. 이런 행태가 과연 세계인의 축제를 개최하는 '대국의 품격'인가 의심스럽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미국 플로리다주 산불, 화재 진압하는 소방관들



6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에서 산불이 발생해 파나마시티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플로리다주에서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해 1100여 가구가 긴급 대피했으며 파나마시티에서는 요양 시설 입원 환자들이 대피했다.

백악관 앞 모인 러시아 규탄 시위대



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의 백악관 밖에서 사람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